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547~547p 번호 : 17	문제-문항	① 대리권은 성년후견의 개시로 소멸한다. ② 대리권은 대리인의 파산으로 소멸한다. ③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. ④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하며, 채무의 이행도 할 수 없다. ⑤ 대리인이 그 권한범위 밖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.	① 대리권은 성년후견의 개시로 소멸한다. ② 대리권은 <b>본인</b> 의 파산으로 소멸한다. ③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. ④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하며, 채무의 이행도 할 수 없다. ⑤ 대리인이 그 권한범위 밖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.
		수정 사유	법 조항 해석 오류
547~547p 번호 : 17	해설	<b>대리권의 소멸사유(민법 제127조)</b>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. 1. 본인의 사망 2. 대리인의 사망,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[오답분석] ② 대리권은 대리인의 사망으로 소멸한다(민법 제127조). ③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(민법 제117조). ④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.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(민법 제124조). 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(민법 제114조 제1항).	<b>대리권의 소멸사유(민법 제127조)</b>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. 1. 본인의 사망 2. 대리인의 사망,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[오답분석] ② 대리권은 <b>본인</b> 의 사망으로 소멸한다(민법 제127조). ③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(민법 제117조). ④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.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(민법 제124조). 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(민법 제114조 제1항).
		수정 사유	법 조항 해석 오류
550~550p 번호 : 22	문제-보기(지문)	22 다음 <보기> 중 근저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(단, 다름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). <small>HUG(2021)</small> ㉠.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된다. ㉡. 피담보채권의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. ㉢.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더라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. ㉣.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 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. ㉤.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을 후에 경매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채무확정의 효과는 반복될 수 있다.	22 다음 <보기> 중 근저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(단, 다름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). <small>HUG(2021)</small> ㉠.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된다. ㉡. 피담보채권의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. ㉢.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더라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. ㉣.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후에 <b>이전</b>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<b>지연 손해금</b>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. ㉤.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을 후에 경매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채무확정의 효과는 반복될 수 있다.
		수정 사유	보기와 정답 불일치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 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